

- 범

례

소재지

개관시간

시설 이용료

전화번호

휴일

교통수단

ACCESS

구내 액세스

신주쿠 주변노선도

※신주쿠 내의 역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Shinjuku Free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주쿠구 공공 무선 LAN 서비스~



이메일 주소 입력 등 간단한 등록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용장소는 신주쿠관광진흥협회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Free Wi-Fi 이용 구역 표시



リンクする、新宿アート&カルチャー
新宿フィールドミュージアム

신주쿠 이벤트・문화시설 안내 사이트 ↑



温故知しん！じゅく散歩
新宿文化観光資源案内サイト

신주쿠 문화관광자원 안내 사이트 ↑

신주쿠 관광안내소

영업시간 10:00 ~ 19:00

※연말연시 휴업



SHINJUKU
TOURIST
INFORMATION

신주쿠 관광안내소



본 책자에 게재된 각 시설 등의 정보는 2025년 3월 시점의 내용입니다.

2024-18-2801

문 의 : 일반사단법인 신주쿠관광진흥협회

〒160-0023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6-8-2 BIZ 신주쿠 3층

TEL: 03-3344-3160 *일본어 대응 FAX: 03-3344-3190 *일본어 대응

info@kanko-shinjuku.jp *일본어 대응

http://www.kanko-shinjuku.jp



〈韓国語版〉



카구라자카

KAGURAZAKA

신주쿠관광 지도

카구라자카

神楽坂

—일본식과 서양식 분위기에
모던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신주쿠구

카구라자카

편집・발행

신주쿠・일반사단법인 신주쿠관광진흥협회

1 가구라자카 길

이다바시역 출구 바로 앞 가구라자카시타에서 시작되는 가구라자카 길입니다. 느티나무 가로수의 언덕길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적인 노포와 모던한 분위기의 음식점, 전통 잡화점 등이 자리잡고 있어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또한, 인접한 골목으로 들어서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골목길이 있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가구라자카역(지하철),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

2 효고 골목

돌길 골목과 노포 로테이. 신주쿠구 마치나미(거리) 경관상도 수상한 옛정취 넘치는 효고 요코초. 센고쿠 시대에 우시고메 성의 무기고(효고)가 있었던 것이 그 이름의 유래입니다. 과거 요코초(골목)에 자리했던 레트로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료칸에서는 작가 노사카 아키유키, 영화감독 야마다 요지 등이 머물며 많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가구라자카역(지하철),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

3 가쿠렌보 골목

'미복으로 놀러온 사람의 뒤를 밟아도 골목으로 들어가면 놓친다'고 하여 숨바꼭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골목입니다. 흥취가 있는 자갈길과 옛모습을 전해주는 검은색 담이 이어지는 골목에서 옆으로 들어서면 왕년의 유곽의 분위기가 연상되는 게이샤신도(芸者新道)로 통합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가구라자카역(지하철),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

4 겐반 골목

2011년 12월에 신주쿠에서 제정한 총 길이 약 100m의 골목 이름입니다. 게이샤들을 알선하거나 게이코(연습)를 하는 '겐반(見番)'이 길을 따라 있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구라자카 화류계의 전통예능을 승계하는 곳에 알맞게 게이코 장에서는 때때로 일본 고유의 정서가 담긴 샤미센 소리가 들려옵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가구라자카역(지하철),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

5 젠코쿠지

모모야마 시대(1568~1603) 후기에 창건. '가구라자카의 바사문텐'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으며 거리의 상징이기도 되었습니다. 7월에 열리는 가구라자카 마츠리 때는 '호즈키(파리) 시장'이 열리며, 밤에 개최되는 전통춤 아와오도리 대회와 함께 크게 번성합니다.



DATA

신주쿠구 가구라자카 5-36 ☎03-3269-0641

이다바시역(JR / 지하철)에서 도보 5분, 가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6분,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6분

6 아카기 신사

약 700년간 우시고메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소설가)가 연극공부회를 열었으며,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소설가)와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도 드나들던 문화예술의 터였습니다. 경내에는 카페가 있어 참배 후나 산책 때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DATA

신주쿠구 아카기모토마치 1-10 ☎03-3260-5071

가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1분,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8분

7 이치가야노 모리 책과 활자관

다이쇼 시대의 건축을 복원한 활자와 책 만들기에 관한 문화시설. 문자 디자인 및 주조에서 인쇄, 제본까지의 공정을 전시하고 있어 심오한 인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동 중인 오래된 활판인쇄기와 활판 장인의 작업 현장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DATA

신주쿠구 이치가야 가가초 1-1-1 대일본인쇄 ☎03-6386-0555

평일 11:30~20:00, 토, 일, 공휴일 10:00~18:00

월 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 연말연시

무료(일부 예약제 https://ichigaya-letterpress.jp/)

이치가야역(JR / 지하철) 도보 10분~15분, 우시고메 가구라자카역(지하철) 도보 10분

8 미야기 미치오 기념관

쟁곡 '하루노우미(봄 바다)'로 유명한 미야기 미치오(宮城道雄)가 여생을 보낸 곳에 세운 기념관입니다. 생전에 애용하던 쟁과 그가 고안한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작품을 시청할 수 있는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6년 11월까지 휴관 예정.



DATA

신주쿠구 나카초 35 ☎03-3269-0208 ☎10:00~16:30 (입장은16:00까지)

휴일·일요일~화요일, 공휴일 및 3월 25일~3월 27일, 8월 1일~8월 10 일, 12월 25일~1월 5일

일반 400엔, 학생 300엔, 초등학생 200엔(단체할인 있음)

이다바시역(JR / 지하철)에서 도보 10분, 가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10분,

우시고메카구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3분

- 범례
- 소재지

개관시간

시설 이용료

전화번호

휴일

교통수단

9 혼다 골목

가쿠라자카에서 제일 큰 요코초(골목)으로 혼다 츠시마노 가미의 저택이 있었던 것이 그 이름의 유래입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50채 이상의 점포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으로 빌딩 사이로 오래된 목조 점포와 옛 료테이의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가쿠렌보 골목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가쿠라자카역(지하철), 우시고메가쿠라자카역(지하철)

10 야라이 노가쿠도

신주쿠 유일의 노가쿠 공연장입니다(국가 등록 문화재). 매월 2번째 일요일에 간제큐코카이(観世九草会)의 정례 공연이 개최되어 일본의 전통 가면 능악극인 노가쿠(能楽)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유료). 또한 노가쿠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시마이(춤), 우타이(노래) 열리고 열리고 있습니다.

DATA

신주쿠구 야라이초 60 03-3268-7311(견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의 요망)
가쿠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2분, 우시고메가쿠라자카역(지하철)에서 도보 5분

11 에도성 외호 옻터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의 명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우시고메몬(이다바시역)에서 아카사카몬(아카사카미쓰케)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들새와 물고기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시고메미쓰케(牛込見附), 가쿠라가시(神楽河岸), 아게바초(揚場町) 등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지명도 남아 있습니다.

DATA

이다바시역(JR / 지하철), 이치가야역(JR, 지하철)

지역 언덕길과 거리의 이름



가쿠라자카에는 사카(언덕길)가 많습니다. 지역 내의 표고차는 20m 이상으로 소데스리자카(袖摺坂), 효탄자카(瓢箪坂), 지조자카(地蔵坂), 아이사카(逢坂), 가루코사카(軽子坂) 등 정취가 있는 이름이 붙은 언덕길이 약 60곳 이상 있습니다. 또한 단스마치(筆管町), 난도마치(納戸町), 사이쿠마치(細工町), 하라리카타마치(払方町) 등 에도시대의 거리 풍경을 연상시키는 거리명도 많아서 그 유래를 알면 더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